

제 89 호

연중 제 19 주일

(강림 후 10)

1974. 8. 11.

숲 정 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함 승 천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소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33498)

【강 료】

내 어린 양들 조금도 무서워하지 마시오

박 종근 신부



무더위에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추가 지났어도 무더위는 계속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 모든 일이 싫증만 나며 의욕도 없어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먹고 입고 마시고 자는 일까지도 누가 대신 해 주기를 바라는 푸념도 터뜨립니다. 다행히도 콜라같은 청량 음료나 청량제들이 있어 무더위를 잠시나마 가시게 하여 새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무더운 것은 날씨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반 현실과 사조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신자들에게 무덤처럼 느껴집니다. 부정, 불의, 부조리 및 불신의 고조는 정의를 수립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권력의 우상화는 하느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가장 고귀한 선물인 자유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하느님처럼 섬기는 참으로 극악스러운 현 사회의 풍조는 가난한 이웃 형제를 노예와 인간이하로 취급하는 현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내세운단적 종교로만 몰아 세우려는 일부인들의 거침없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등 현실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사명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 널려있는 반그리스도교적 사조와 요인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 실천을 압박하게 하고 두려움에까지 합니다.

담담하고, 미약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들, 조금도 무서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기꺼이 하늘 나라를 여러분께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무더위를 가시게 하는 청량 음료나 청량제의 역할은 잠시뿐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고맙게 여기고 그것으로써 기운을 얻었습니다. 하늘 나라는 우리에게 있어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늘 나라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하느님께서 그와같은 당신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음을 우리는 듣고 보았으므로 그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그리스도 신자로서 현재 받는 모든 고난을 타개하며 모든 본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덕진, 주임 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1)개회식

□**입당송** 하느님, 당신의 언약을 돌아보시고 당신의 가난한 이들 생명을 내내 잊지 마소서. 하느님, 일어나 시어, 울음을 밝히시고 당신을 찾는 이들의 외치는 소리를 잊지 마옵소서.

(2)말씀의 전례

□**제1독서** (지서 18: 6-9, 경향잡지 8월호 P. 69)
주님은 적을 벌하신 것처럼 우리는 불러 영광을 주셨나이다.

□**증계송** ◎복되다 주께서 당신 기쁨으로 뽑으신 백성이여.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바라나니 우리 구원, 우리 방패 주님이요. 야훼님 우리가 당신께 바랐던 그대로 어여뻐 여기심을 우리 위에 내리소서, ◎

□**제2독서** (히브리 11: 1-2, 8-19, 성서 P. 512)
하느님이 설계하시고 건축하실 도시를 바랐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너희는 인자 오실 날을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알렐루야.

□**복음** (루가 12: 32-48, 성서 P. 164)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신자들의 기도

1.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여, 이 세상에는 천년만년이나 살 것 처럼 현재의 것들에 너무나 집착하여 사랑과 정의를 거스르고 사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에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깨우쳐 주시는 주여,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정말로 필요한가를 알게 하소서. ◎ 주여...

2. 당신의 어머니를 영광스러이 승천케 하신 주여,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로 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성모의 큰 덕을 배우게 하소서.

+주여 비오니,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 주... ◎아멘

(3)성찬의 전례

□성찬식 □봉헌

□**영성체송** 내가 주러는 빵은 내 살이니, 이로써 세상 이 생명을 얻으리라.

(4)폐회식

* 숲 정 이 산책 *



성당에서는
옷을 삼가 합시다.



한국 주교단의 알림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8월 1일자 석간 신문과 8월 2일자 조간 신문에 보도된 “지 학순씨 공판”의 소식을 듣고 경악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원주 교구장 지 학순 주교님이 소위 민청학련 사건에 가담하여 김 영일(김 지하사인)씨에게 108만원의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률적인 신문 보도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점이 허다함을 인지하고, 이 사건의 경과를 개진함으로써 교형자매들의 오해를 불식할 의무를 느낍니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경과는 이러합니다.

1) 지 주교님은 1974년 7월 6일 해외에서 공무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시면서 김포 공항에서 모 기관원에 의하여 연행 구인되었습니다.

2) 7월 8일 모 기관은 이 사실을 김 추기경께 통고하였습니다. 이유는 지 주교님이 민청학련 사건에 관련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 주교님은 김 지하씨에게 금전을 준 것은 사실이나 민권운동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지 정부 전복을 의도한 일이 없다는 것을 당일 면회하신 추기경께 밝혔습니다.

3) 7·10 전국 주교단은 국가와 지 주교님을 위하여 특별 기원 미사를 드렸습니다.

4) 7월 10일 부터 15일까지 극히 제한된 자유를 허용받아 샤르뜨르 성바오로 수녀원에 계셨습니다.

5) 7월 15일 저녁부터 23일까지는 관계 기관의 감시하에 당뇨병 치료를 겸하여 성모병원에 연금되어 계셨습니다. 그동안에 지 주교님은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비상 보통 군법회의에 출두령을 받았으며, 22일 저녁에는 공판 연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6) 7월 23일 지 주교님은 자기 양심상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비상 군법회의에 출두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양심 선언”을 발표하셨고, 당일로 다시 연행 구인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7) 7월 25일 전국 주교단이 이 문제를 검토하였고, 그날 저녁 명동 대성당에서 주교단, 성직자, 수도자 다수를 포함한 2천여명 신자들이 국가와 위정자들과 지 주교님 및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기원 미사를 드렸습니다.

8) 8월 1일 지 주교님은 보통 군법 회의에서 사실 실리 공판을 받았으나, 신문 보도는 사실과 다른점이 있습니다. 지 주교는 국가 변란을 획책한 일이 없으며, 금전 수수도 1·8 긴급 조치 이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9) 신문에는 변호인 6명과 20여명 방청인이 참관하였다 했으나, 일부러 방청하러 갔던 성직자, 수도자, 평신자들은 아무도 방청하지 못하였습니다.

10) 8월 7일에 다시 공판이 있다고 하니, 우리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동안의 경과를 요약하였으므로 교형 자매들은 신문 보도를 액면 그대로 받아 들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는 지 주교님의 평소의 성실성과 애국심과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물질 양면의 노력에 대하여 깊이 존경하는 바이며, 사회 정의를 갈파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노력은 사목자의 당연한 의무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교형 자매들에게 우리 나라의 참된 민주적 발전을 위하여, 위정자들의 현명하고 신중한 처사를 위하여, 그리고 지 주교님을 위시하여 고통을 당하는 모든 이를 위하여, 또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압제하에 신음하는 동포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것과, 우리들 주변에서부터 참된 정의와 사랑의 실천을 계속할 것을 당부하여 마치 않습니다.

1974년 8월 6일 예수의 변모 축일

한국 주교단 상임위원회

이 주간의 성경

- 12<월> 독서(에제키엘 1:2-5, 24-2:1)
복음(마태오 17:21-26, 성서 P.41)
- 13<화> 독서(에제키엘 9:1-7, 10, 18-22)
복음(마태오 18:1-5, 10, 12-14, 성서 P.42)
- 14<수> 성모 승천 전야
독서(고린토전서 15:54-57, 성서 P.401)
복음(루가 11:27-28, 성서 P.159)

- 15<목> ※ 성모 승천 대축일
독서(고린토전서 15:20-26, 성서 P.399)
복음(루가 1:39-56, 성서 P.123)
- 16<금> 독서(에제키엘 16:1-15, 60, 63)
복음(마태오 19:3-12, 성서 P.44)
- 17<토> ※ 성 라우렌시 부제 순교 축일
독서(에제키엘 18:1-10, 13, 30-32)
복음(마태오 19:13-15, 성서 P.45)

제일 비싼 독일의 3년 연속 V.A. 번식 성적 1위인 판토호의 직자
렉스 V 래트프

仔犬분양 (입한전 애견)
문의처: 전화 ⑦692(진북동 어은골)

고 외 과 의 원

고 재 상(나자로)

TEL. ⑦ 4 2 5

서중.교육위원회 앞(진북동)

염 소 아 과 의 원

염 의 도(시몬)

TEL. ② 6 8 5 9

서울은행 옆 이치과 뒤



성모와 현대 여성

윤 공 희 대주교

그녀의 모성적 역할은 점차로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하여 마침내 갈바리아에서는 온 인류를 위한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교황 바오로 6세는「마리아 공경」이라는 당신의 사도적 권고(1974. 2. 2)에서 성모 마리아가 현대 여성들에게도 완전한 모범이 된다는 데 대해 언급하시면서, 현대적 입장에서 본 성모님의 모습을 그려내셨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보고자 한다.

교회는 성모 마리아를 모든 크리스찬들의 모범으로 제시한다. 특히 마리아는 이상적 여성으로서 모든 시대의 여성들의 모델이 되신다. 현대에 와서 여성들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며, 사회, 정치, 문화의 각 분야에 진출하여 남성과 공동 책임을 지고 갖가지 중요한 결정과 시책에 참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소망과 의무에 차 있는 현대 여성들에게도 나자렛의 마리아가 이상적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성모께서 그리스도 신자들의 모범이 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뜻을 완전히 그리고 책임있게 받아들이는 그녀의 근본 태도 때문이다. 성모는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사셨으며, 그분의 행동의 원동력은 곧 애덕과 봉사의 정신이었다. 성모는 진실로 그리스도의 첫 제자요 완전한 제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분이시다. 성모는 이러한 근본적 생활 태도로써 우리의 영구적이고 보편적인 모범이 되시는 것이다.

그리고 성모는 현대적 특성을 지닌 여성들에게도 가장 훌륭한 모델이 되신다. 모든 공동관심사에 대한 정책 결정에 참여하기를 갈망하는 현대여성은, 마리아가 어떤 부수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의 강생이라는 인류 구원의 역사적 중요 사건에 관해서 하느님과 대화에 불리우시고, 이에 대해 당신의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동의를 주시는 것을 보고 탄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대 여성은, 마리아가 강생의 신비를 위한 하느님의 계획을 따라 동정의 신분을 택하시지만, 그 선택이 혼인 신분의 어떠한 가치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고자 행해진

용감한 선택임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현대 여성은, 하느님의 뜻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나자렛의 마리아가 철대로 두루움을 가지고 굴종하는 여인이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사정은 생각지도 않는 편협하고 냉정한 여인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께서서는 가난한 이들과 억압당하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시고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그 특권 지위에서 물리치시는 분이시라고 명백히 선언하기를 주저치 않는(루카1, 51-53) 여인임을 보고서 기뻐 놀랄 것이다.

현대여성은, 마리아가 주님의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분(교회 헌장55)이시며 가난과 고통, 피난과 망명생활(마태 2, 13-23)을 경험한 굴절 여인임을 인정하고 감탄해 마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의 이러한 환경과 체험들은,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인간과 사회의 해방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다. 마리아는 다만 당신의 신적(神의)아드님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마음의 여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활동은 사도들의 신앙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절고게 되도록 도왔고, 그녀의 모성적 역할은 점차로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하여 마침내 갈바리아에서는 온 인류를 위한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이러한 예증은 동정녀 마리아의 인격이 현대의 모든 남성들과 여성들의 깊은 소망을 저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완전한 모델이 되신다는 사실을 뚜렷히 증명해 주는 것들이다. 즉 마리아는 천상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 힘차게 순례의 길을 걸어 가면서 동시에 지상의 현재적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주님의 제자들의 모범이시다. 마리아는 억압된 이들을 해방시키는 정의와. 궁핍한 이들을 돕는 애덕을 위해 일하는 크리스찬들의 모범이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안에 그리스도를 건설해 주는 사람의 증인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완전한 모범이시다.

(광주 대교구 교구장)

문 산부인과 의원

문 지 식(테나도)

TEL. ② 2918

경전라사 옆 체신청 뒤

이 신경외과 의원

이 종 두(헨리교)

TEL. ② 2646

아관원 옆. 구 대주교

교우 여러분들의 애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합동 7공급소 (활천주장)

길 언 념(엘리사벳)

TEL. ② 2777

법원 네거리 삼광주장자리

제 4 지구 6개 본당 소식



1. 전국 합동 미사

8월 12일(월) 오후 8시 중앙성당에서 전국 규모 합동미사가 있어오니 신자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2. 대전 주교좌 본당에서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미사와 기도회(8월 5일 오후 8시반부터)

전국에서 100여명의 사제와 1,500여 평신도 및 수도자들이 참석했다.

3. 전주지구 중·고등 연합회 제6차 지역대회 및 하기 수련회

(8월 11-14일, 군산 문물동 성당에서)

①접수: 1,500원의 참가비를 각 본당 학생회장에게 내시면 됨(수시로 접수)

②가톨릭 신자인 전주교구 남녀 중·고등 학생이면 누구든지 참가 할 수 있음.

4. 공소 교리교사들을 위한 하기 연수회(8월 18-22일, 완주군 송광사 옆 자연의 집에서)

연수회의 성공을 위한 기도와 특별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5. 사도회장 및 총무 연수회(8월 21-22일, 가톨릭센터)

사목 협의회에서는 사도회장과 본당 총무를 위한 연수교육을 위와같이 가지오니 각 본당에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6. 꾸르실로 성공을 위한 기도 부탁(순정이 86호 참조)

7. 16일 성년행사 (장소: 중앙성당, 책임자: 김활철 신부)



전화 ②2651 ②3874

주임 신부 이대권
보좌 신부 서석구
사도 회장 이복석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안건: 9월 정기총회 준비

2. 꾸리아 월례회 (오늘 오후 2시)

3. 교무금을 완납합니다

본당 유지비가 고갈되었습니다. 하느님께 자진신입하신 교무금 납부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당의 제반사업이 중단상태입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미납된 교무금을 하루속히 완납합니다

4. 성모회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 미사후)

5. 성모회 총회 (8월 15일 오전 10시)

□지난 주일 현금 40,007, 감사합니다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기훈
사도 회장 조성호

1. 신용협동조합 창립 총회 (오늘 공식 미사후)

조합에 가입하신 분과 뜻을 가지신 분은 미사후 강당에서 있는 창립총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 성우회 월례회 (오늘 창립총회 후)

3. 8월은 교무금 완납의 날

9월말에 74회계년도가 끝납니다. 8월중으로 교무금을 완납합니다. 하느님께 약속을 지킵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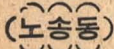
4. 주일 봉헌금에 관심을 가지고 배가(倍加)에 정성을 다합니다.

5. 아동교리반에 관심을 가지신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연락: 안 이나시오 신학생

□지난주 성미 2말 1되, 누계 296말 9되

□지난주일 현금 10,615원, 감사합니다.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할승현
사도 회장 조해형

1. 신용조합 월례회 (오늘 10시 미사후)

2. 부녀회 월례회 (다음주일)

3. 성당 신축 현금 감사합니다

중앙성당: 김요셉, 이후동: 박양남 황창호(각1천원)

이후동: 안복태미카엘 (2천원)

층노 1가: 박태순 ①도마(1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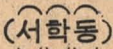
4. 성바오로 수녀님들 가정방문

이 무더위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실례를 과약하시는 수녀님들을 기쁜마음으로 맞아주시시오

□지난 주 신축기금 6천원 누계 1,501,497원

지난주 신축성미 1만 5되 누계 201말

지난주일 현금 14,760원 감사합니다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1. 어린이 보레 영세식 (8월14일 오전 10시)

어린이들 화요일 (13일)까지 사무장에게 신입바람. 14일은 저녁미사 없고 보레 영세미사가 있습니다.

2. 신학생들 공소 순회

공소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3. 성모승천 대축일 (8월15일)

대축일 미사에 교우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아동교리 반학 (8월말까지)

특별교리에 보여주신 부모님들의 성의에 감사드립니다.

5. 토요일 미사는 오후 8시에

□지난주일 현금 9,676원, 감사합니다.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종환

1. 학생회 회합 (오늘 공식 미사후)

2. 신용조합 임원회 (오늘 공식 미사후)

신용조합 월례회 (다음 주일 공식 미사후)

3. 교무금이 38%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9월말 결산 이전에 납부합니다.

4. 공소주일 미사 안내

전당리 매월 2째주일 오후 4시

미산리 매월 3째주일 오후 4시

내동리 매월 4째주일 오후 4시

5. 아동교리 하기반학 (8월11일부터 31일까지)

6. 어린이 보레 영세식 (8월 14일부터 오후 8시)

7. 성모 승천 축일 미사 (주일과 같음)

8. 어린이 첫 영성체 (성모승천 공식미사때)

9. 가정방문 8월12일 금암동 3, 4, 5반

8월13일 팔복동 나머지 및 송천동

□지난 주일 봉헌금 8,000원, 감사합니다.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정승재
사도 회장 송재진

1. 승천미사 시간 (8월15일)

5시30분, 10시, 오후 4시, 8시 (동교관제로 학생미사는 오후 4시)

2. 첫 영성체 (오후 4시 미사때)

3. 자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4. 방지거 삼회: 제8차 총회 및 제2회 지도자 강습회

(회원 및 일반교우 적극 참여바람)

주제: 하느님과 이웃과의 화해

일시: 1974. 8. 23~25(2박3일)

장소: 부산진구 우암동(피정의집)

참가비 1인당 2,500원

신청마감일: 8월18일 주일까지

5. 신용조합 소식: 14일(수요일)저녁9시, 월례회 있음

8월15일부터 위약금제도 실시함.

■금주의 순정이 은인■

사도회 재정부장 김영욱(야고버)

전동 전제사 감사합니다.

행사표은인: 매번 일금 5,000원

□애령회 특별헌금 있음.

지난주일 봉헌금 47,872원, 감사합니다.